

책세상으로의 여행

파주어린이 책잔치가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 ‘문자와 이미지로 배우는 책세상’이라는 주제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및 파주출판도시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는 파주어린이책잔치는 테마전시, 특별전 및 심포지엄, 북시티 프로모나드(Promenade-산책), 공연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책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개막식 및 전야제

본 행사에 앞서 5월 2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진행된 개막식 및 전야제 행사는 테이프커팅식을 시작으로 출판도시문화재단 이기웅 이사장의 개회사와,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어 오마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남궁호 선생님의 마임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이기웅 이사장은 “올해에는 한글창제의 의미에서부터 그 디자인적 활용까지 알아보는 한글전과 주목할 만한 국내의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을 조명한 테마전시를 통해 문자와 이미지라는 두개의 큰 주제로 어린이 책을 들여다봤다”고 전하면서 “파주출판도시가 준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풍요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장실 차관은 개막식에서 “어렸을 때 독서 습관이 커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에서도 어린이들의 독서를 활성화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출판협회(IPA) 총회를 계기로 출판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출판인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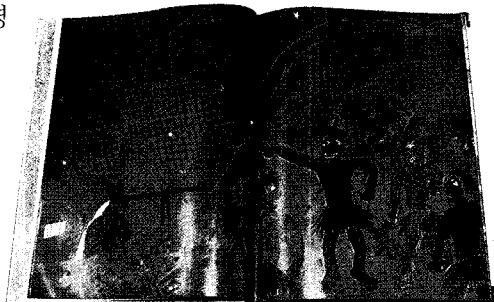
이날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이광재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유화선 파주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테마전시-키즈북토피아

7~80년대의 어린이책부터 수려한 그림과 독창적인 내용을 자랑하는 국내의 그림책과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렸다.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부터 현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까지 모두 한곳에 모아 국내의 그림책의 역사도 한 눈에 확인하고 신나는 놀이도 경험하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특별한 행사였다.

한권의 책을 기획하는 초기단계부터 어린이들이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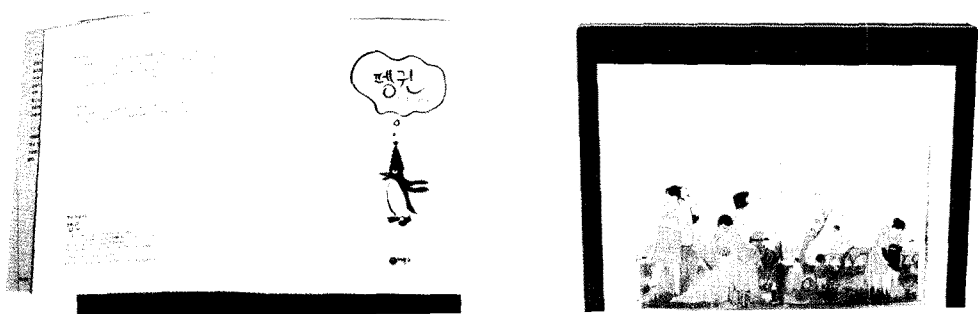


아시아출판정보센터내 테마전시장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자음과 모음을 붙여가며 단어를 만들고 있다.

작가가 되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완성해보는 '나만의 책 만들기' 그림책 공부모임 '꿈지기' 엄마들이 준비한 '종이 인형극' 작은 이야기방에서 웅기종기 모여 앉아 빛그림으로 큰 책을 보며 이야기를 듣는 '작은 이야기방 큰 그림책'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북시티 프롬나드(Promenade-산책)
출판도시에 입주한 출판사와 인쇄사, 유통사가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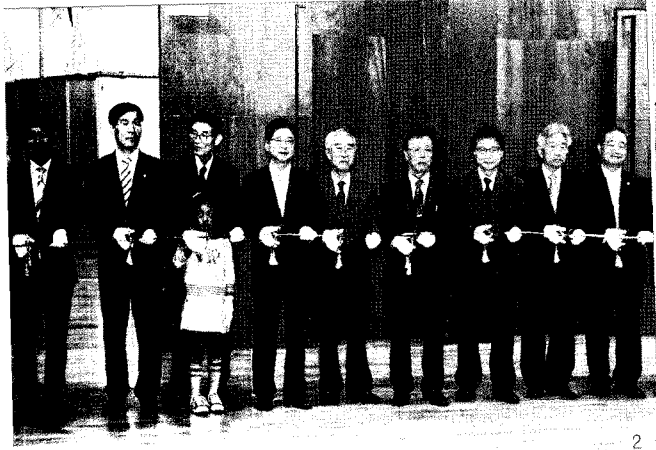
적으로 전시하는 50개 개별전시관에서는 출판의 제작, 인쇄, 유통에 관한 내용을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익힐 수 있는 출판과정 견학 프로그램, 어린이 출판도시 체험, 독서학습능력 무료 테스트, 페이스페인팅, 동화 구연극, 어린이 글짓기 한마당, 영어 실력 테스트, 나만의 책 만들기, 알쏭달쏭 온 가족 OX퀴즈, 어린이 영화제, 세계의 사슴벌레 특별전, 나무책 만들기 등 다양한 책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홍우동 인협회장,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정선 보진 재대표(왼쪽부터)가 인쇄물을 보고 있다.
 개막식에서 테이프 커팅행사를 하고 있다.
 유화선 파주시장,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홍우동 인 쇄협회(왼쪽부터) 회장이 직지체험관 부스에서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어린이 협창단이 개막식행사에서 축하합창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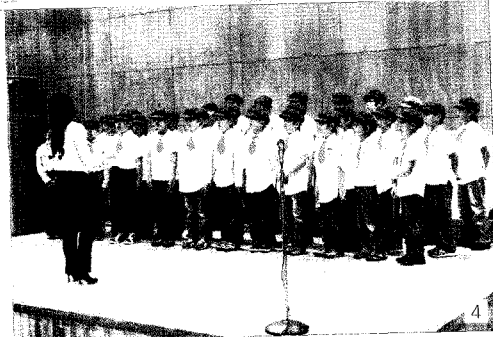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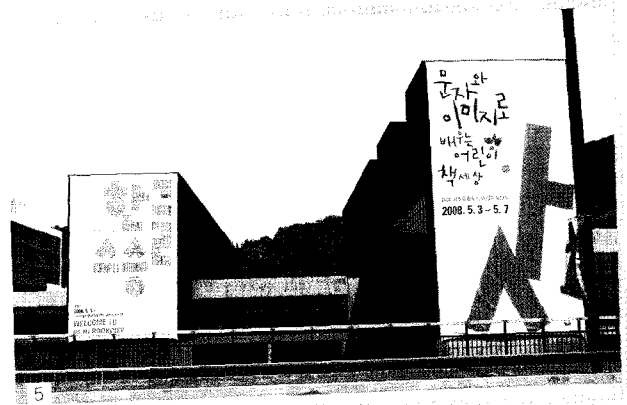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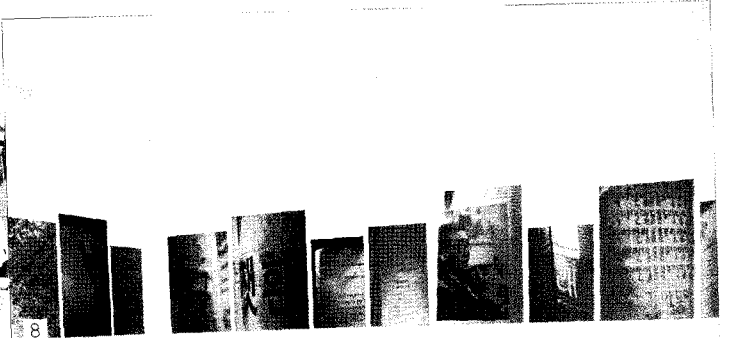
파주 어린이책잔치행사안내 대형현수막이 아시아출판문화정보 센터 건물벽에 나란히 걸려 있다.
 엄마와 아이들이 천연비누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어린이들이 한글과 알파벳이 새겨진 도장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한글과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한글승선 전시 모습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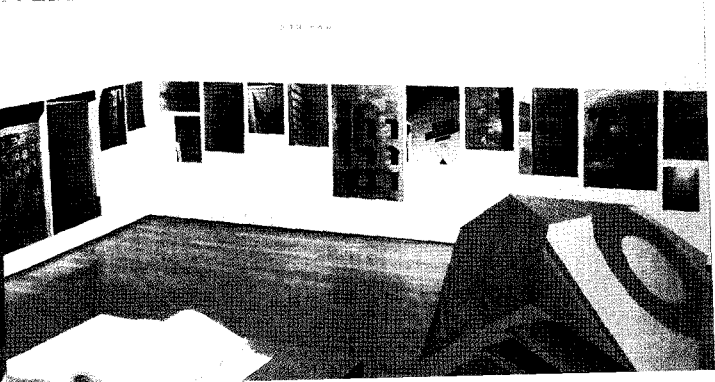
6



8



7





9 테마전시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전시되었다.
10 7~80년대 포스터도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한글, 스승展

한글전에서는 우리 겨레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한글'을 조망해 보고 한글의 창제 원리로부터 타이포그래피(typography)의 다양한 변용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한글 관련 역사자료, 출판물, 한글의 다양한 모양을 보여주는 자료, 한글이 예술이 되는 타이포그래피 작품, 한글 활용 디자인 상품이 전시되었다. 훈민정음 탁본, 한글 자모 놀이 등 한글을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다양한 부대행사

이 밖에도 어린이책잔치에는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었다. 우리 전통의 소리를 실내악으로 감상해 보는 '우리 소리 실내악 콘서트'와 '해설이 있는 사물놀이 한마당'이 펼쳐져 어린이들의 흥을 돋았다. 이와 함께 과학 실험 콘서트, 뚜버기들의 창작동요 콘서트, 영상과 음악으로 감상하는 그림책 및 평화방송 'FM 음악공감 진희숙의 일요스페셜' 진행자인 진희숙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리 시대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이야기'를 비롯한 풍성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인협·청주시, 직지홍보관 운영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남봉익)은 직지 홍보관을 운영했다. 직지 금속활자 제작과정 디오라마, 직지 홍보 패널 등을 전시해 직지의 가치와 중요성, 금속활자가 인류발달에 끼친 영향, 흥덕사 금속활자가 과학발달사에서 역할 등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현지 상주하며 관람안내와 직지 금속활자판 인쇄체험을 실시하여 관람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람자들에게 직지홍보 책자를 통한 홍보도 병행했다.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